

# 나의 동네 이야기

사나래학당



# 목 차

1. 내일을 만드는 선택
2. 검룡소의 작은 용
3. 구문소의 비밀편지
4. 태백산 눈꽃
5. 단풍나뭇잎의 약속
6. 바람의 악기
7. 등을 밀어주는 바람
8. 상장동 벽화거리
9. 빛이 켜진 어둠
10. 용연 동굴의 빛

# 목 차

- 11. 소바꾸꼴
- 12. 철암탄광의 그림자
- 13. 태백산
- 14. 공룡의 숨
- 15. 통리 5일장
- 16. 통리의 별
- 17. 해를 향해
- 18. 황지연못에서 들은 목소리
- 19. 황지천 속삭임
- 20. 겹쳐진길

# 내일은 만드는선택

365세이프타운은 안전을 배우는 곳이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했다

체험을 마치고 나오는데 옆 벽에 작은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 들어서자,

미래의 태백 도시가 눈앞에 펼쳐졌다.






유리돔 안에서 기차가 하늘을 달리고,  
에너지는 반짝이는 빛으로 흐르고 있었다.

미래의 내가 내 손을 잡았다.

“오늘 네가 배우는 작은 선택이 내일을 만든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주머니에는 낯선 지도가 들어  
있었다.





## 검룡소의 작은 용

아빠랑 검룡소에 갔다.

물이 솟아나는 곳이라서 시원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다.

발을 담갔는데 물속에서 반짝이는 게 보여 가까이  
다가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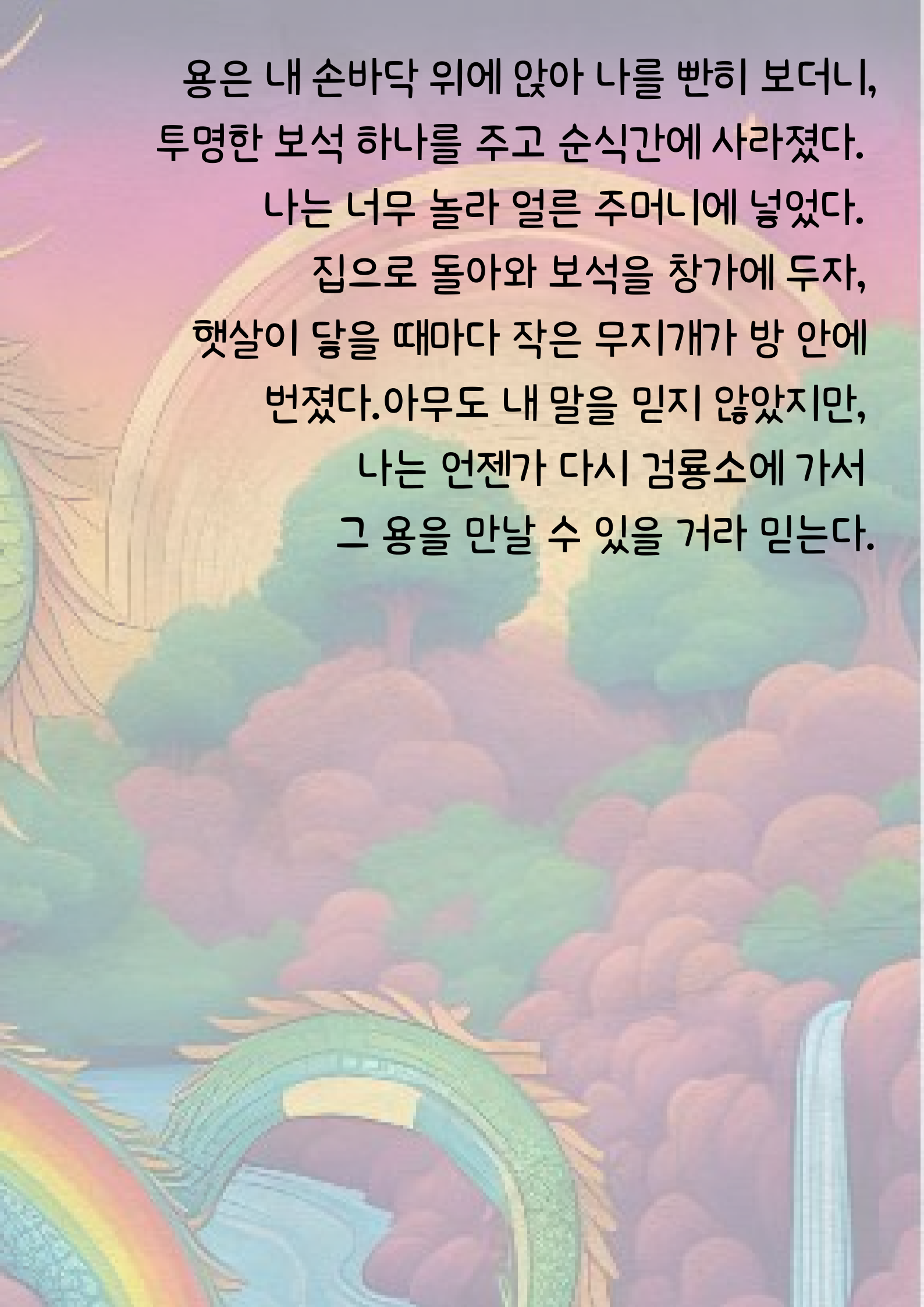
순간, 작은 용이 물 위로 튀어나왔다.

용은 내 손바닥 위에 앉아 나를 반히 보더니,  
투명한 보석 하나를 주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너무 놀라 얼른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와 보석을 창가에 두자,  
햇살이 닿을 때마다 작은 무지개가 방 안에  
번졌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지만,

나는 언젠가 다시 검룡소에 가서  
그 용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 구문소의 비밀편지

아빠랑 구문소에 갔다.

강 옆에 커다란 바위가 서 있었고,

나는 그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런데 바위 틈 사이에서 낡은 종이쪽지가 삐져나와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꺼내 보았다. 종이에선 비둘배  
똥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바위를 만지면 시간의 문이 열린다.”

나는 순간 웃음이 났다.

누가 장난으로 끼워 넣은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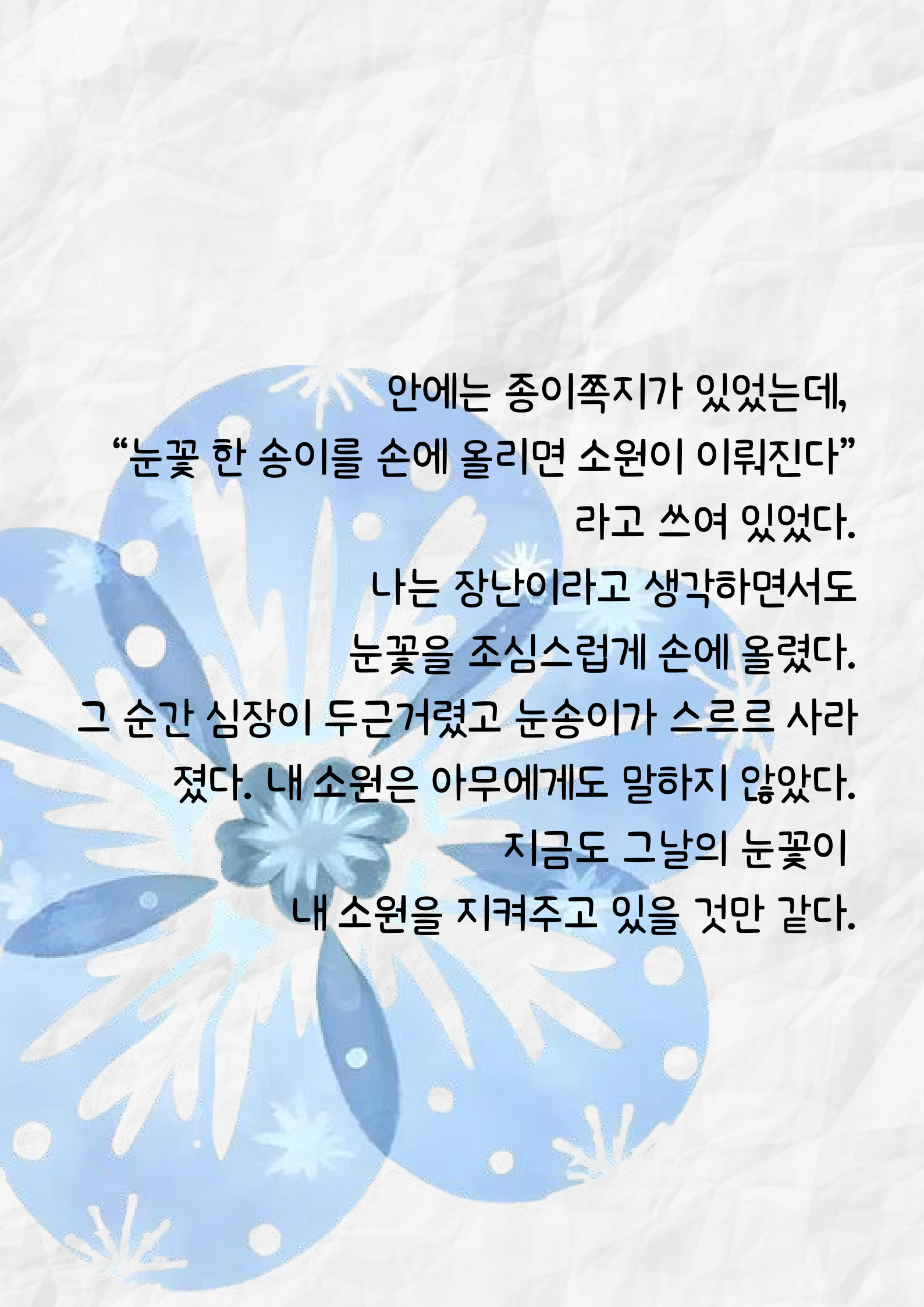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위가 ‘쿵’ 하고 울리듯 흔들렸다.  
먼지가 흩날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쳤다.  
나는 겁이 나서 종이를 바위 틈에 다시 꽂아두고 달려  
내려왔다.집에 돌아왔지만 계속 생각이 난다.  
만약 ,그날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바위를 만졌다면,  
정말로 문이 열렸을까?  
혹시 과거의 태백으로 갔을까?아니면 먼 미래였을까?  
구문소는 이제 나에게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가는 비밀 통로 같다.



## 태백산 눈꽃의 소원

겨울에 친구들과 태백산 눈꽃축제에 갔다.  
나무마다 하얀 눈꽃이 가득해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숨이 차고 힘들었는데,  
눈꽃을 보는 순간 마음이 환해졌다.  
정상 근처에서 눈싸움을 하다  
눈 속에서 작은 유리병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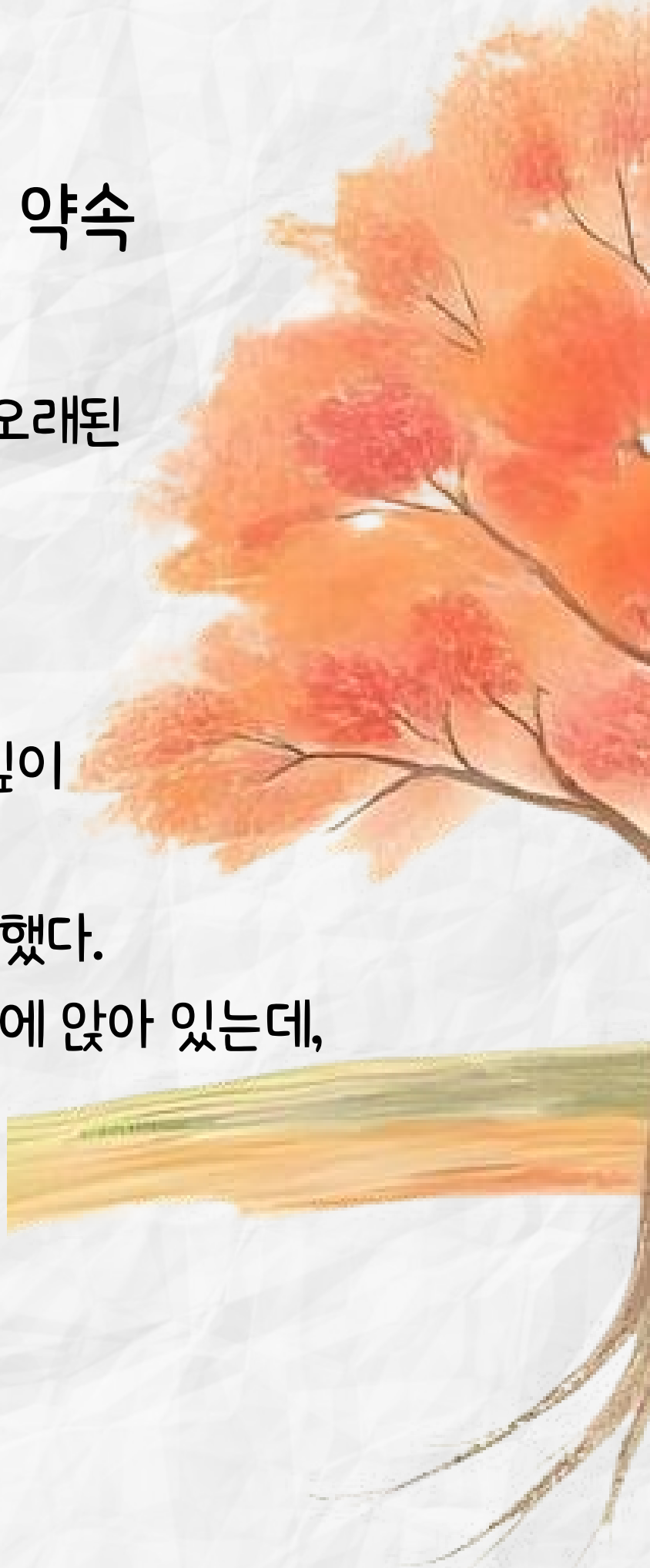
안에는 종이쪽지가 있었는데,  
“눈꽃 한 송이를 손에 올리면 소원이 이뤄진다”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눈꽃을 조심스럽게 손에 올렸다.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고 눈송이가 스르르 사라  
졌다. 내 소원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지금도 그날의 눈꽃이  
내 소원을 지켜주고 있을 것만 같다.



# 철암 단풍나무의 약속

우리 동네에는 아주 오래된  
단풍나무가 있다.  
친구들이랑 자주  
그 아래에서 놀았다.  
가을이면 붉은 단풍잎이  
비처럼 쏟아져서  
우리 머리 위를 덮곤 했다.  
어느 날 혼자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나무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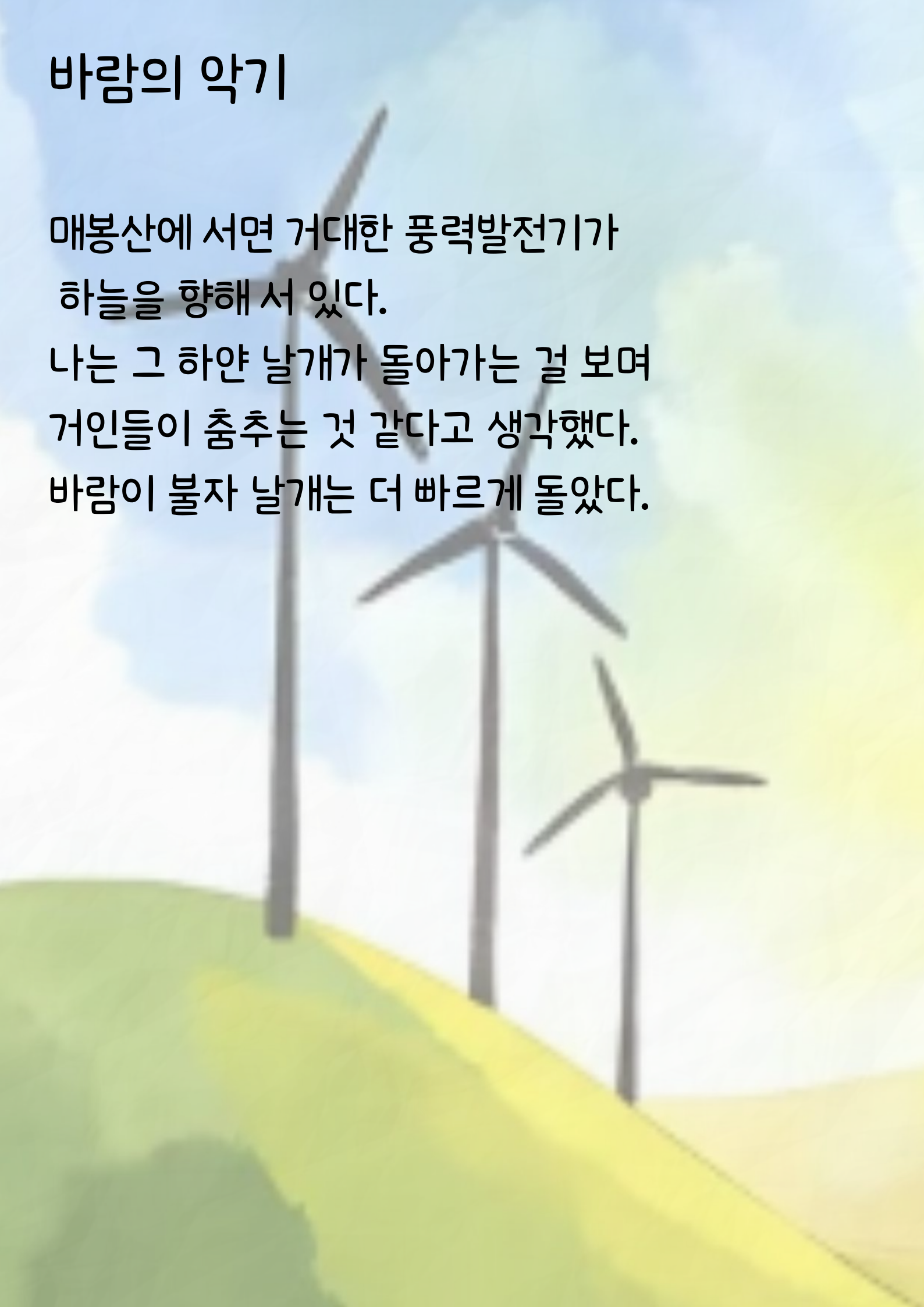


“잎이 모두 떨어지는 날,  
너의 비밀도 함께 물어줄게.”  
나는 깜짝 놀라 비밀 일기를  
나무 뿌리 근처에 묻었다.  
다음 해 봄, 같은 자리에 가 보니  
일기는 사라지고  
작은 새싹이 자라 있었다.  
나는 그 새싹이  
나의 비밀을 간직한  
증거라고 믿는다.

# 바람의 악기

매봉산에 서면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하늘을 향해 서 있다.

나는 그 하얀 날개가 돌아가는 걸 보며  
거인들이 춤추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바람이 불자 날개는 더 빠르게 돌아왔다.





그 순간, 나는 그 거인이  
나에게 말을 거는 걸 들었다.  
“우리는 바람을 노래로 바꾼다.”

매봉산 풍력발전단지는  
나에게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바람을 잇는 거대한 악기였다

## 등을 밀어주는 바람

매봉산 바람의 언덕에 갔다.

이름처럼 바람이 세차게 불어 얼굴을 스칠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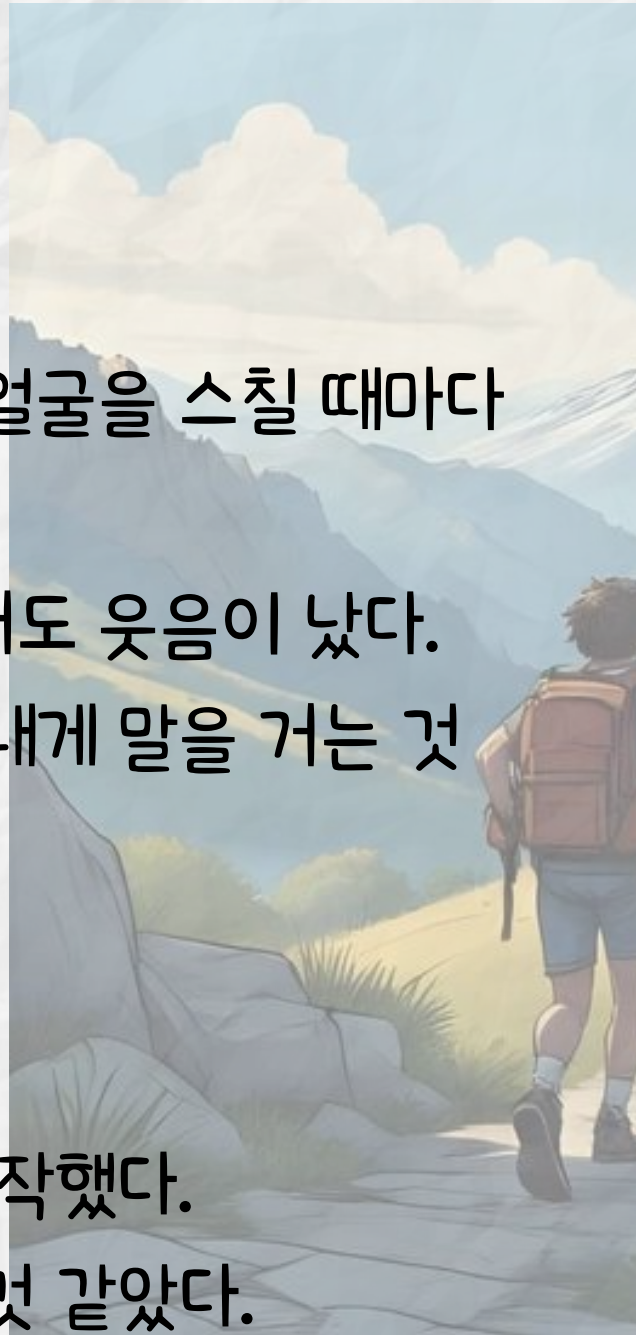
나는 바람 때문에 비틀거리면서도 웃음이 났다.  
그런데 그 바람이 이상하게도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더 빨리 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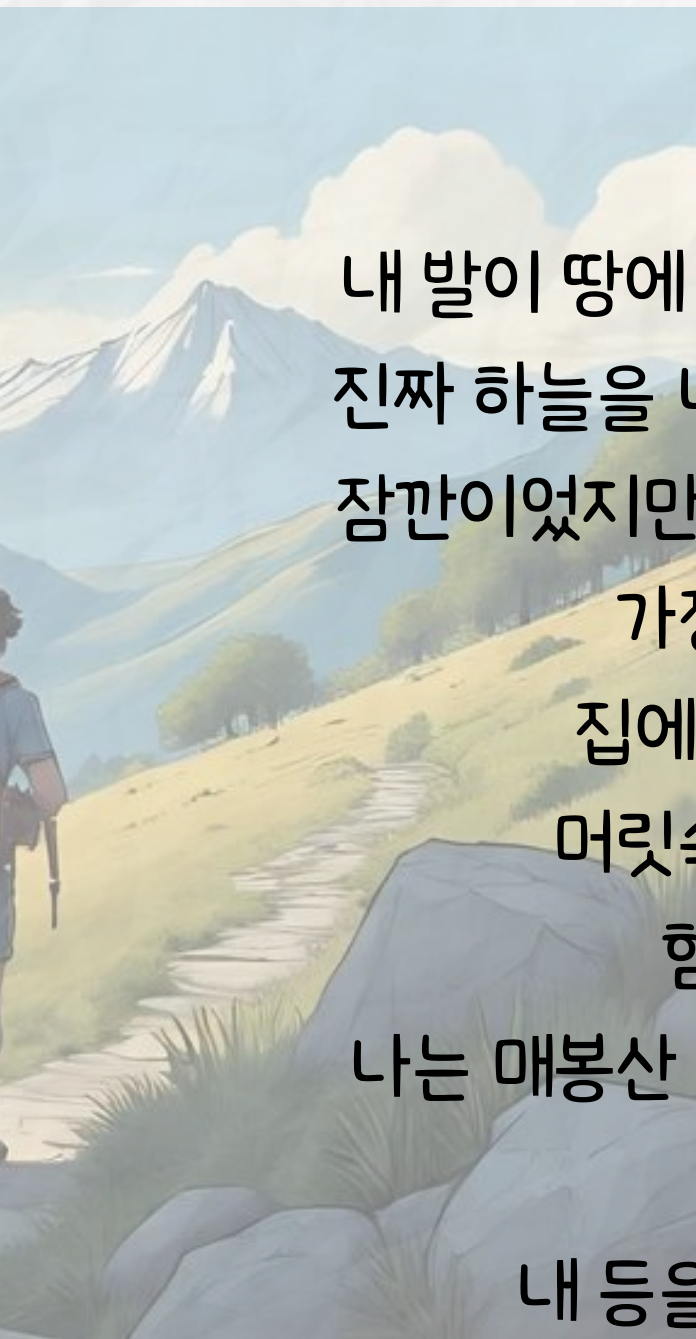
나는 갑자기 달리고 싶어졌다.

그래서 힘껏 언덕 위를 뛰기 시작했다.

바람이 등을 세차게 밀어주는 것 같았다.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은 기분,  
진짜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잠깐이었지만, 나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집에 돌아와도 그때의 바람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힘들거나 기운이 없을 때,  
나는 매봉산 바람의 언덕을 떠올린다.  
그 바람은 여전히  
내 등을 밀어주고 있는 것 같다.





## 상장동 벽화거리

상장동 벽화거리는 알록달록한 그림으로 가득했다.  
나는 벽에 그려진 고양이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고양이가 갑자기 눈을 깜빡였다.



나는 놀라 손을 뻗었고,  
고양이는 벽에서 튀어나와 내 어깨 위에 올라탔다.  
“이 거리를 지켜 줘.”  
고양이는 그렇게 말하곤 다시 벽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벽화거리를 걸을 때마다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는 눈빛이 느껴진다



## 빛이 켜진 어둠

학교에서 태백석탄박물관에 갔다.  
광부 체험을 하며 곡괭이를 들고 석탄을 캐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환한 빛이 나타났다.  
눈앞에는 1980년대 탄광 현장이 펼쳐졌다.  
광부 아저씨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곡괭이를 잡고 함께 석탄을 캐다.  
다시 눈을 뜨니 전시관 안이었다.  
그런데 내 손에는 까맣게 묻은  
석탄가루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순간이 상상이 아니라  
진짜 시간여행이었다고 믿는다.



## 용연동굴의 빛

여름방학 때 가족과 용연동굴에 갔다.  
동굴 안은 습하고 어두웠다.  
손전등을 비추며 길을 따라 걷는데,  
내가 잘못 들어선 작은 길 끝에서 반짝이는 빛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닥에 작은 수정 같은 돌이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 돌을 만졌다.  
그러자 갑자기 동굴 전체가 환해졌다,

그 빛 속에서 하얀 동물 모양의  
그림자들이 나타나 나를 둘러싸고 춤을 추었다.

나는 숨이 멎을 만큼 놀랐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무서움보다 편안함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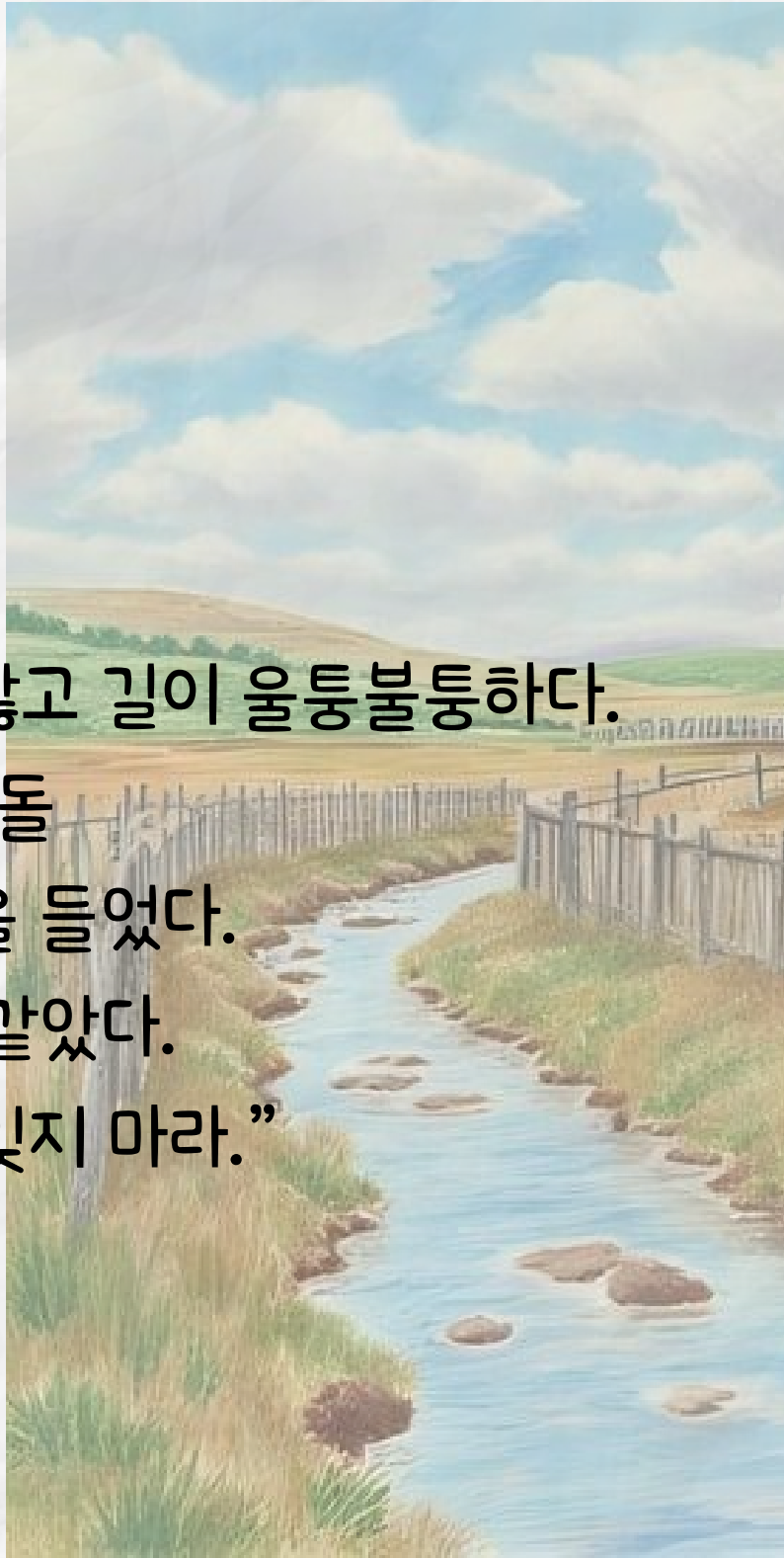
잠시 후 빛과 동물들은 사라졌지만,  
내 손에는 작은 수정 조각이 남아 있었다.  
지금도 그 조각은 내 방 책상 서랍 속에 있다.

가끔 꺼내 볼 때마다,  
그날의 동굴 속 빛이 아직도 내 마음을  
비춰주는 것 같다.



## 쇠바우꼰

철암 쇠바우꼰은 돌이 많고 길이 울퉁불퉁하다.  
그날 나는 홀로 건다가, 돌  
사이에서 이상한 울림을 들었다.  
마치 돌이 노래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지나온 길 을 잊지 마라.”





쇠바우꼴의 노래는 슬프면서도 따듯했다.

나는 잠시 앉아 돌을 만지며  
오래전 광부들의 발자국을 떠올렸다.

그들의 땀과 삶이  
돌 속에 아직 살아 있는 것만 같았다.

# 철암탄광의 그림자

체험학습으로 철암탄광역사촌에 갔다.

예전 광부들이 살던 집과 골목길이 그대로 남아 있어  
조금 으스스했다.

나는 친구들과 떨어져 좁은 골목을 혼자 걷고 있었다.  
낡은 전등이 깜빡이며 골목을 비추고 있었는데,  
벽에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다.

사람의 형체였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낮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조심해...”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다리가 떨려 움직이지도 않았다.

간신히 뛰어나와 선생님과 친구들 곁으로 갔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집에 와서 사진을 정리하다가 나는 다시 놀랐다.

내 뒤에 분명히 검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빛 때문에 생긴 착시라고 했지만,  
나는 지금도 그 그림자가 진짜 광부였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아직도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닐까



## 태백산

태백산에 오르면 바람이 먼저 인사한다.  
능선을 따라 걸을수록 숨은 거칠어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진다.  
정상에 닿아 해가 오르는 순간,  
산은 금빛으로 밝아지고

내 안의 어두움도 조금 물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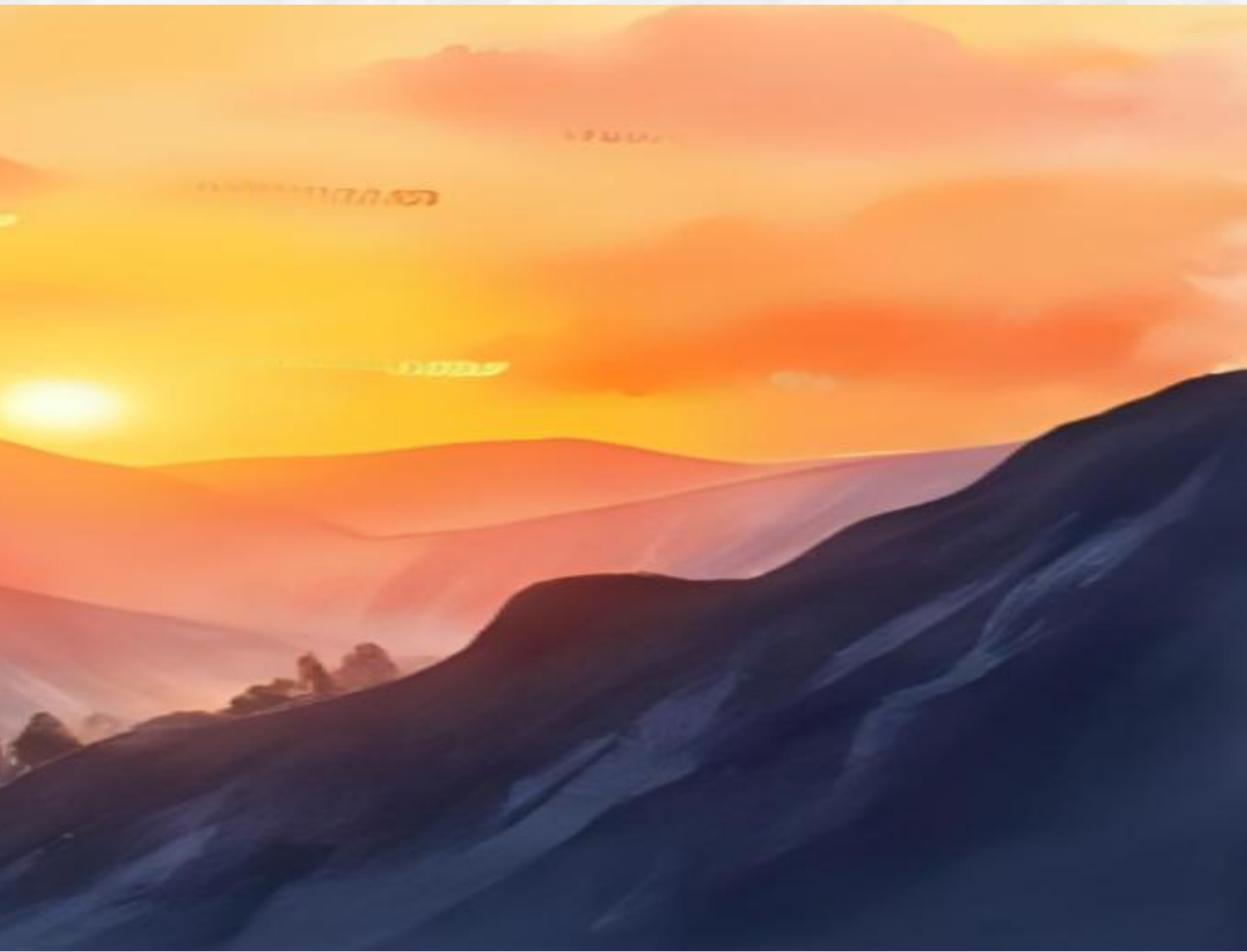
내려오는 길,

소나무 향이 따라오고 발끝엔

잔설이 바삭거린다.

태백산은 늘 그렇게,

말없이 등을 밀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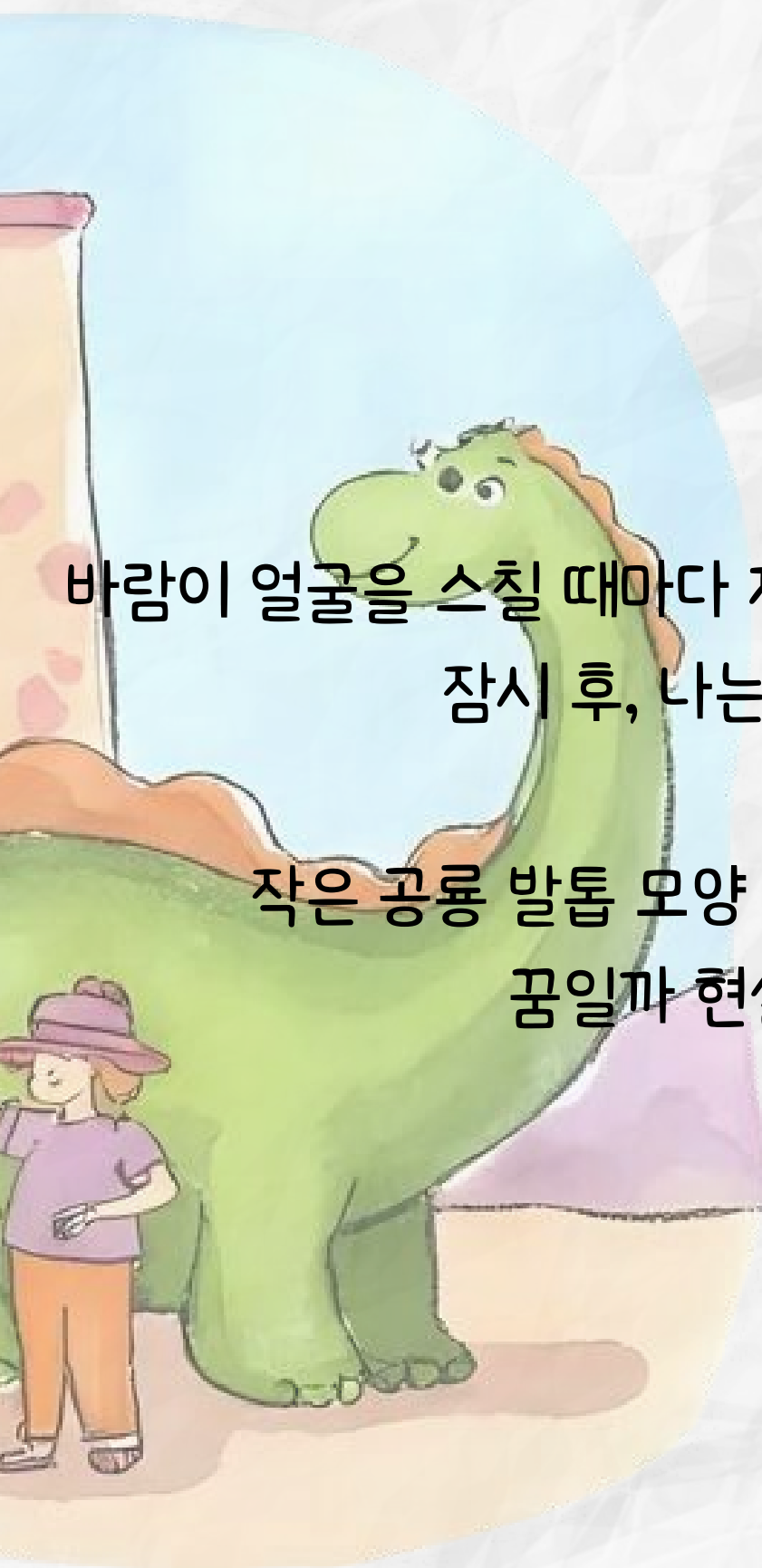




## 공룡의 숨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 갔다.  
커다란 공룡 뼈 앞에 앉아 쉬다가 깜박 잠이 들었다.  
눈을 뜨니 실제 공룡이 내 앞에서 있었다.  
공룡은 나를 태우고 산을 달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다.  
잠시 후, 나는 벤치 위에서 눈을 떴다.  
하지만 내 손에는  
작은 공룡 발톱 모양 돌멩이가 쥐어져 있었다.  
꿈일까 현실일까, 아직도 헷갈린다.

# 통리 5일장의 소리

통리 5일장은 언제나 시끌벅적하다.

상인들의 외침, 사람들의 웃음,

그리고 맛있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시장을 걸으며 군것질을 했다.





그런데 문득,  
시장의 소리가 음악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국밥 끓는 소리, 채소 팔던 할머니의 목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나로 합쳐졌다.  
통리 5일장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오케스트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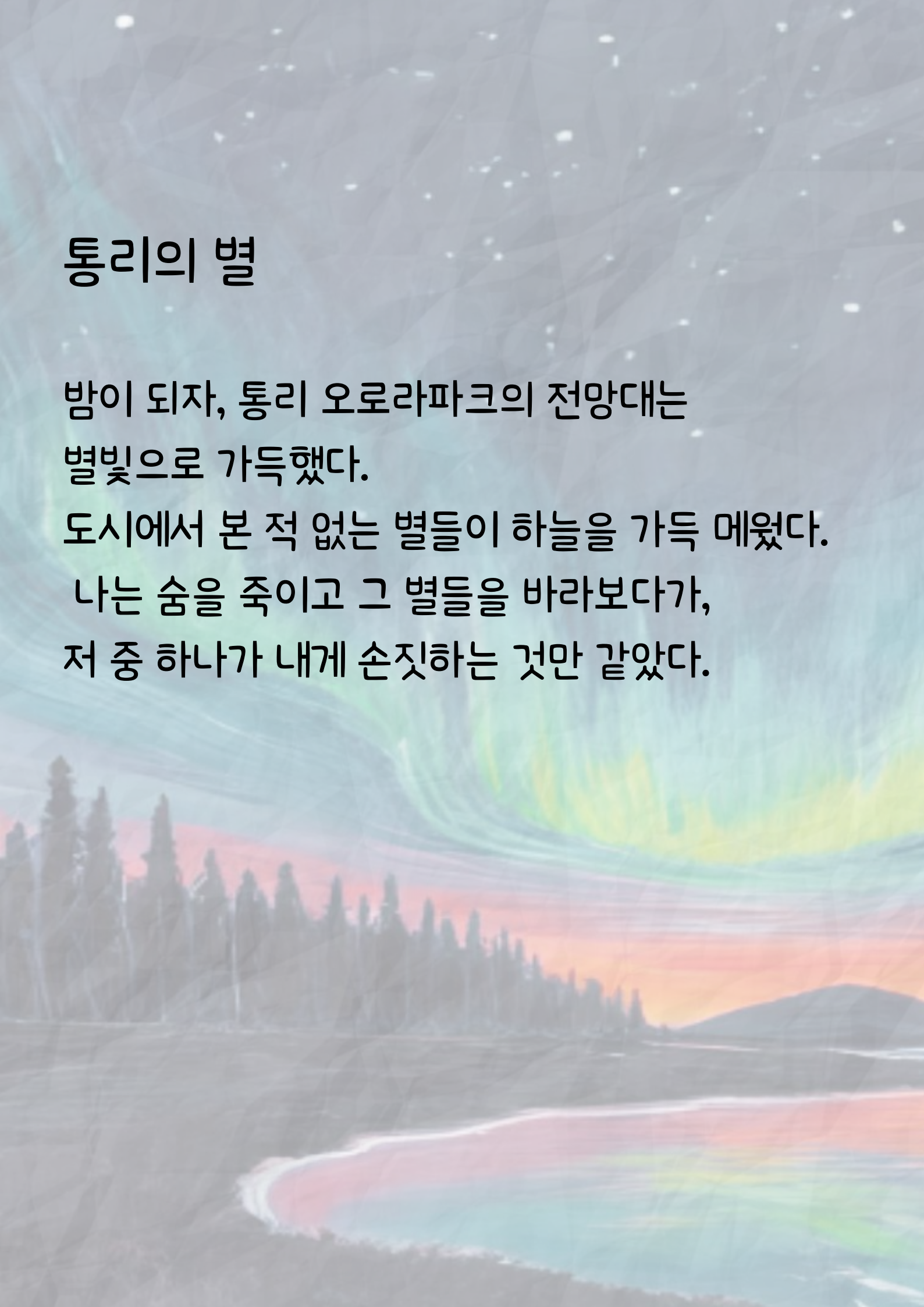


# 통리의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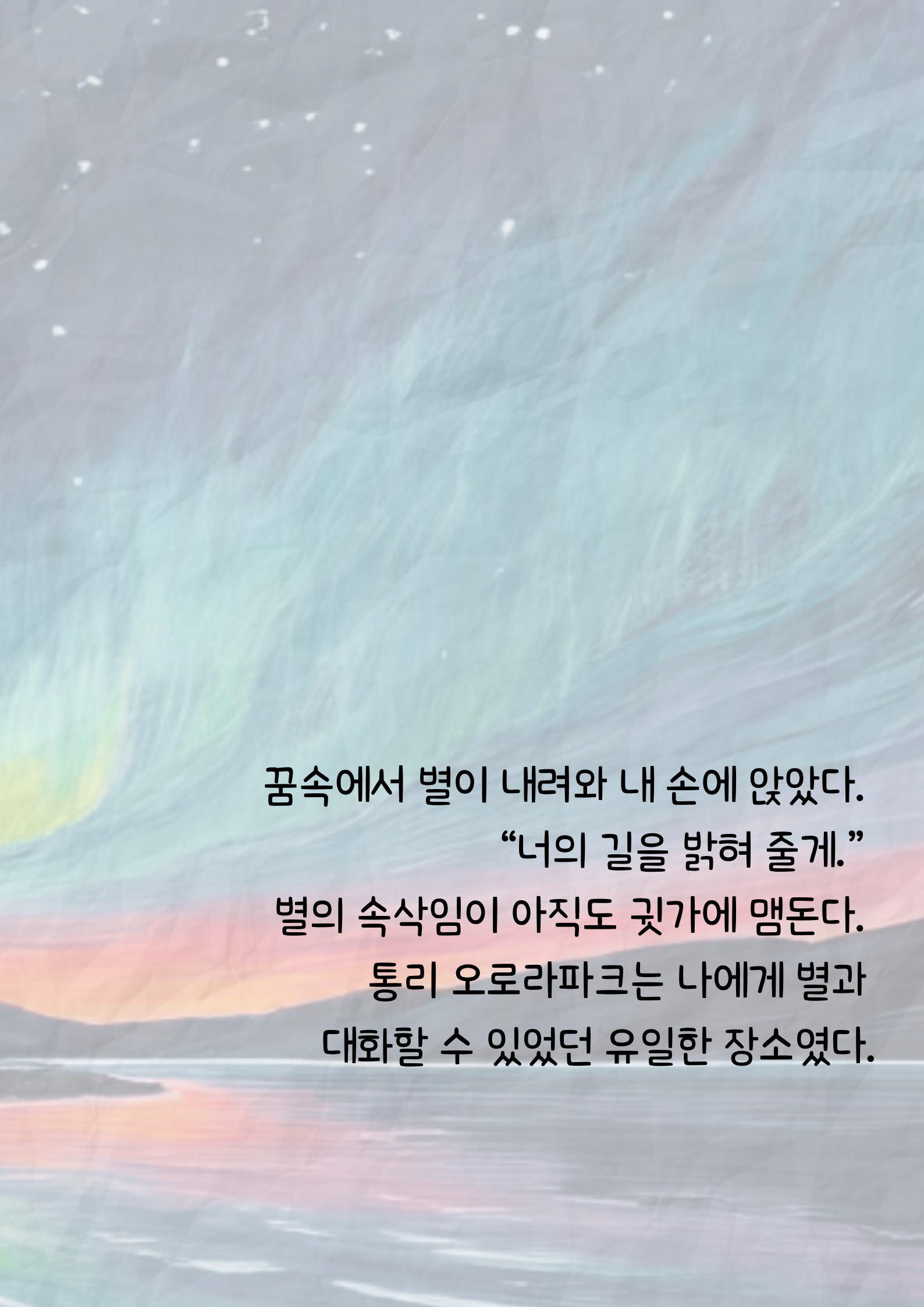
밤이 되자, 통리 오로라파크의 전망대는  
별빛으로 가득했다.

도시에서 본 적 없는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별들을 바라보다가,  
저 중 하나가 내게 손짓하는 것만 같았다.







꿈속에서 별이 내려와 내 손에 앉았다.

“너의 길을 밝혀 줄게.”

별의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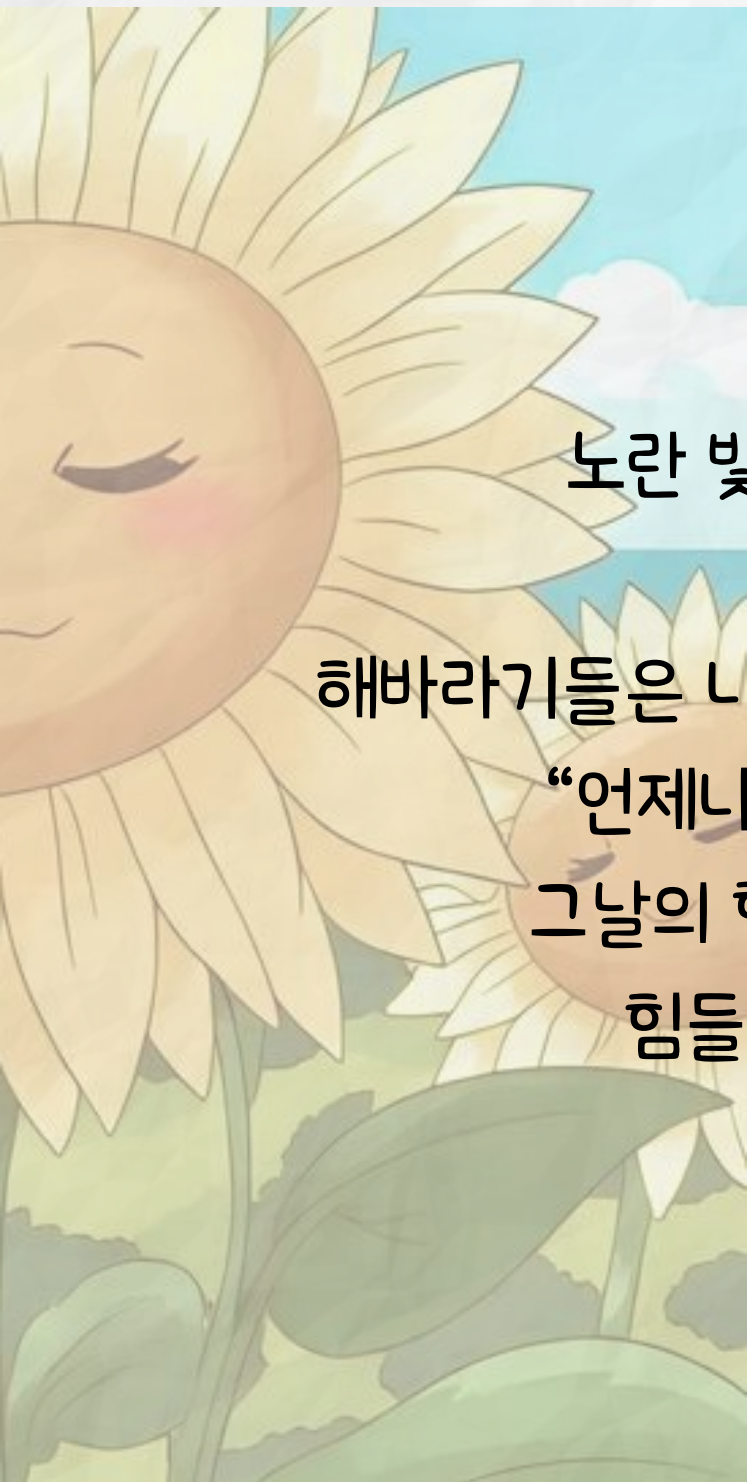
통리 오로라파크는 나에게 별과  
대화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였다.



## 해를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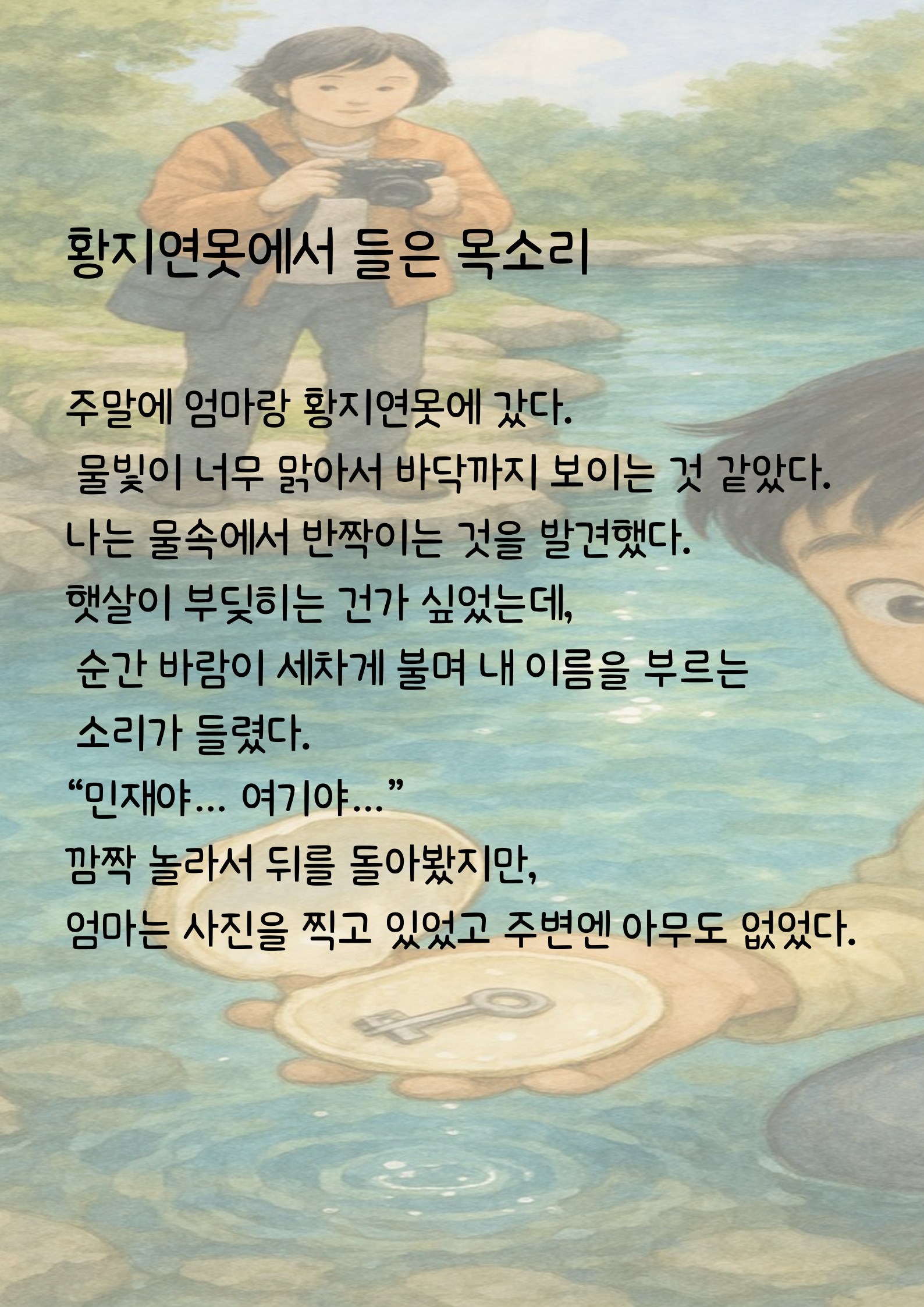
여름, 해바라기축제에 갔다.  
끝없이 펼쳐진 노란 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꽃들이 고개를  
저으며 일제히 웃는 것 같았다.  
나는 그 한가운데서 눈을 감았다.





노란 빛이 눈꺼풀 안으로 스며들어  
마음까지 환해졌다.  
해바라기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언제나 해를 향해, 고개를 들어라.”  
그날의 햇살은 아직도 내 안에 남아,  
힘들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운다.



A person with dark hair, wearing an orange jacket and dark pants, stands on a rocky bank by a river. They are holding a camera up to their eye, taking a photo. The background shows a calm river with green trees on the opposite bank under a soft sky. In the foreground, a large, detailed eye of a person is visible on the right side, looking towards the scene.

## 황지연못에서 들은 목소리

주말에 엄마랑 황지연못에 갔다.

물빛이 너무 맑아서 바닥까지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물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햇살이 부딪히는 건가 싶었는데,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며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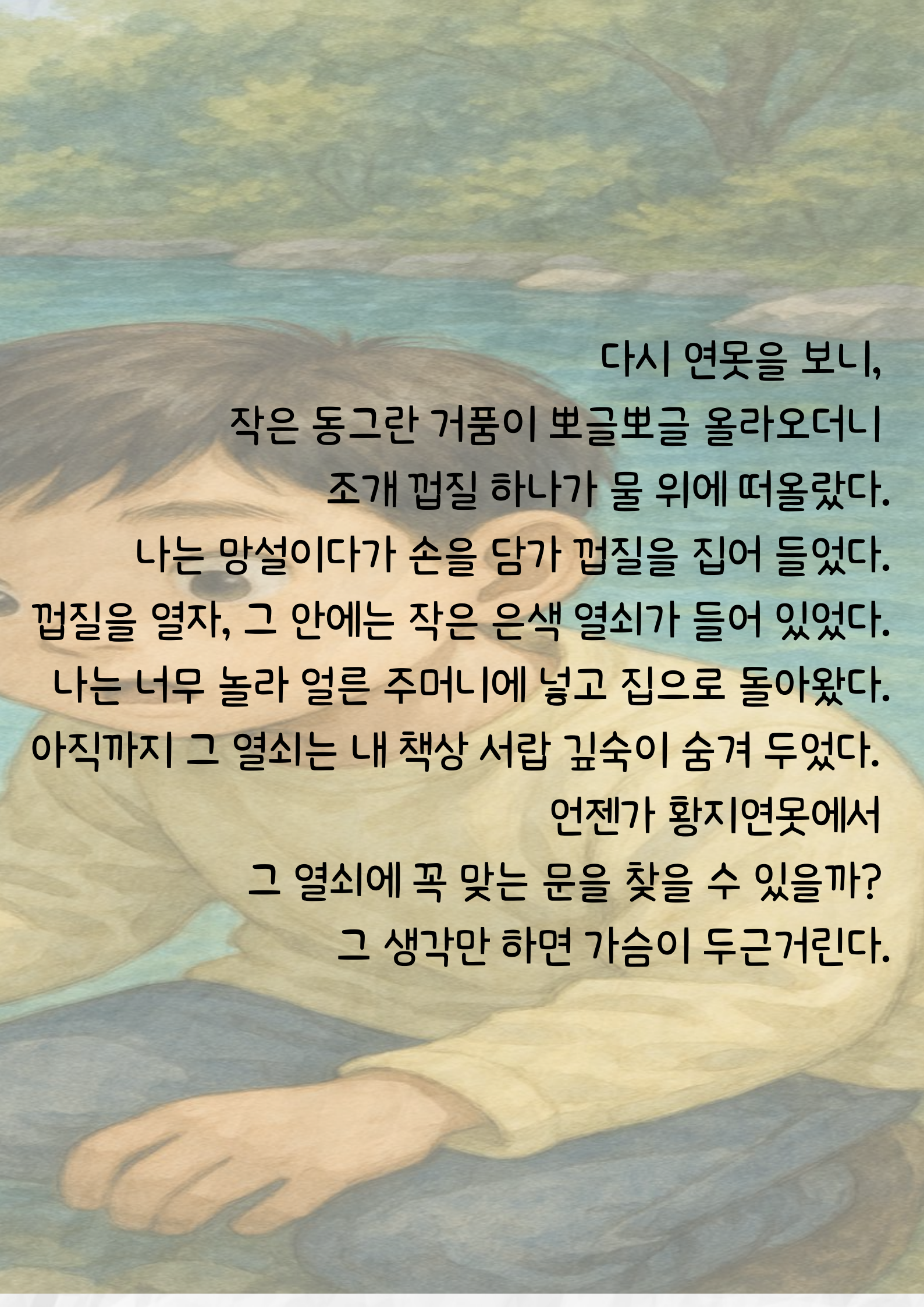
“민재야... 여기야...”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엄마는 사진을 찍고 있었고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다시 연못을 보니,  
작은 동그란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더니  
조개 껍질 하나가 물 위에 떠올랐다.

나는 망설이다가 손을 담가 껍질을 집어 들었다.  
껍질을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은색 열쇠가 들어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얼른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직까지 그 열쇠는 내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 두었다.

언젠가 황지연못에서  
그 열쇠에 꼭 맞는 문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 황지천의 속삭임

황지천 산책길을 걸으면  
강물 소리가 내 발걸음을 따라온다.  
물빛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바람은 내 머리칼을 스쳐 갔다.  
그날은 이상하게 바람이 귓가에서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순간 멈춰 서서 강물에 얼굴을 비춰 보았다.  
내 모습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진 눈빛을 발견했다.  
황지천은 단순한 산책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위로받는 비밀 친구였다.





# 겹쳐진 길

통리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가 있다.  
길을 걷다 보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친구와 그 길을 걸으며  
장난스럽게 대사를 흉내 냈다.



그런데 순간, 어디선가 진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나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바람만이 길을 스쳐 갔다.

그 순간 드라마와 현실이 겹쳐진 것 같았다.

통리의 그 길은

나에게 꿈과 상상이 만나는 무대였다.





산 아래 꿈을 품은

© 2025 Sanarae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본 전자책의 텍스트·이미지·음원은 교육 목적의 창작물  
사전 동의 없는 무단 복제·배포를 금합니다.





천사들의 날개짓

발행: 사나래학당 | 연락: 010-7273-2651

크레딧: 기획·지도 방하은 / 디자인 여미주

사나래 학당 참여 학생 일동

